

현대유럽보험시장의 구조와 그 동태

박사 부교수 한영철

1. 서론

오늘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이러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다른 나라들과의 보험거래를 확대발전시키는것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과의 보험거래를 활발히 진행해나가자면 국제보험시장에 적극 진출하여야 한다. 그것은 국제보험시장이 각이한 나라들의 보험거래가 집중되는 중심지인것과 관련된다.

유럽보험시장에서 일어나고있는 변화에 대처하여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나라의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가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유럽은 보험의 력사가 오래고 그 어느 대륙이나 지역보다도 국제보험시장이 많이 집중되어있는 곳이다. 이로부터 현대유럽보험시장에서의 경기변동을 제때에 장악하고 그에 맞게 보험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직하는것은 나라의 대외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오늘 세계 여러 나라 보험시장들에서는 보험거래가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그것은 보험이 경제발전과 기업체들의 경리운영, 사람들의 사회경제생활에 일정한 도움을 주는 수단의 하나로 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2014년세계보험료수입액은 세계총생산액의 7%정도로 추산되였다.

2015년에 유럽보험료총수입은 2014년의 4%에 비하여 낮은 비율이기는 하나 2% 증가하여 1조 2 070억 €에 달하였다. 총적으로 2006년부터 2015년사이에 보험료는 11.7% 증가하였다.

론문은 현대유럽보험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보험시장의 구조와 그 동태추이를 잘 알고 그에 맞게 세계적인 범위에서 보험거래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는데 일정한 도움을 주자는 목적에서 집필하였다.

론문은 현대유럽보험시장을 형성하고있는 영국보험시장, 프랑스보험시장, 도이쉴란드보험시장을 비롯하여 유럽나라들의 최근년간의 보험실태에 대한 자료분석과 연구에 기초하여 현대유럽보험시장의 구조와 그것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있으며 현대유럽보험시장의 동태에서 주목되는것은 무엇인가를 해설론증하였다.

2. 본론

일반적으로 구조라고 하면 대상을 이루는 구성요소들의 배열상태와 그것들의 련관과 결합방식의 총체이다.

유럽보험시장을 이루는 구성요소는 시장안에서 상대적자립성을 가지면서 호상 유기적으로 련관되어있는 대상의 구성부분이다.

보험상품이 거래되는 보험시장에서는 보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기의 리해관계에 따라 보험거래를 진행한다. 이때 보험의 수요자는 피보험자로서 기업이나 개인들이고 보험의 공급자는 여러가지 보험업종을 취급하는 보험업체들이다. 이런 보험계약자들, 보험업종과 거래방법은 다종다양하며 따라서 보험시장의 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현시기 유럽보험시장의 구조에서는 보험시장에 참가하는 보험업체의 구성에서 일련의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유럽보험시장에 참가하는 보험업체의 구성에서 일어나고있는 변화내용의 하나는 전문보험업체들의 내부구조가 달라지고있는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시장에서 거래를 진행하는 전문보험업체들은 주식회사나 호상회사의 형태로 존재한다.

물론 나라에 따라 보험업체들을 호상회사조직으로 하는가 주식회사조직으로 하는가 하는 문제는 각이하게 제기된다.

본래 호상회사조직은 영리보험이 아니라 호상보험을 하는 조직으로 되어있었다. 다시 말하여 보험을 하려는 보험계약자들이 모여서 보험자로 되어 서로 보험을 주는 회사조직이 호상보험회사이고 주식회사조직의 보험업체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개기관이 개입하여 보험계약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것으로 되어있었다.

보험을 영리보험과 호상보험으로 나누는 그자체가 자본주의보험업계의 존재목적과 맞지 않는다. 자본주의기업치고 리윤을 추구하지 않는 영리기관이 없으며 리윤과 무관계한 자본이 존재할수 없다. 여기서 자본주의보험회사도 례외로 될수 없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호상보험회사들을 조직하는것은 피보험자들이 자본의 규모가 큰 보험회사에 대처하여 자기들의 리익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피보험자들은 자기들의 리익을 지키기 위하여 호상보험회사를 조직하고 서로 보험을 진행하였다.

호상보험회사로부터 보험주식회사로 이행하게 된것은 주식회사형식으로 보험회사를 조직하면 주식을 발행한것만큼 피보험자들을 받아들여 더 많은 대부자본을 형성할수 있으며 그 자본으로 리윤을 더욱 늘일수 있기때문이다.

호상보험회사는 자본주의발전의 초기에 보험업이 《공제사업》적요소를 많이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발생하였으나 보험업체들의 금융기관화가 우심해지고있는 오늘 자기 시대를 다 산 보험기관이라고 할수 있다. 영국, 도이칠란드를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호상보험회사들이 차지하는 시장몫은 20%이하로 떨어지고있으며 많은 호상보험회사들이 보험주식회사로 전환되고있다. 로씨야는 604개의 등록된 보험회사중에서 7개만이 호상보험회사로 되어있다.

현실적으로 호상회사형태를 취하고있는 보험회사인 경우에도 그 경영에서는 주식회

사와 차이나는 점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있다.

그러나 프랑스보험시장에서 보험회사들은 주식회사와 호상회사형태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호상보험회사형태가 기본으로 되고있다.

프랑스보험시장에는 국내 및 지역보험회사들의외에도 교원들, 고용자들, 정부기관직원들, 군대복무자들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보험활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세워진 많은 호상보험회사들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다국적보험회사들인 알리안즈, 아비바, 악싸 등 많은 호상 및 주식보험회사들이 활동하고있다.

오늘날 호상회사형태를 취하고있는 보험회사들은 그 경영에서는 주식회사와 차이나는 점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것은 보험업체들의 금융기관화가 우심해지면서 호상보험회사도 주식회사와 같이 다종다양한 금융업무를 진행하게 된것과 관련된다.

유럽보험시장에 참가하는 보험업체의 구성에서 일어나고있는 변화내용의 다른 하나는 보험업체들의 구조가 간소화되고있는것이다.

최근 계속되는 경제침체는 유럽보험업체들로 하여금 관리구조와 결정채택과정을 간소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보험회사들은 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것과 관련하여 나라의 여러 곳에 지사를 두고 그밑에 영업소와 지부들을 두고있으며 매 영업소와 지부들도 영업기관들을 가지고있다.

물론 이런 영업조직들은 나라마다, 회사마다 그 크기가 같을수는 없지만 보험상품판매조직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현대적설비와 첨단기술을 받아들이고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새로운 관리체제를 세움으로써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진행하고있다.

특히 보험업무의 정보화는 보험경영활동, 보험거래의 구체적인 실태, 보험대상의 정보를 정확히 료해장악하고 보험사업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복잡하고 방대한 업무거래를 제때에 처리하여 보험경영활동전반을 과학적원리에 맞게 수행해나갈수 있게 한다. 이것은 보험사업에서 보험업무의 간소화에 의한 비용의 감소, 자료의 재수정 또는 추가적인 부담이 없이 정보를 하나의 자료원천에 집중시키고 컴퓨터망을 형성하여 종이문건에 의한 무거운 부담과 로력의 중복과 같은 낡은 방식의 업무처리로 인한 사람들의 업무적부담을 덜수 있다. 이것은 보험업체들의 구조가 간소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현대유럽보험시장은 무엇보다먼저 여러가지 보험업종을 제공하는 보험업체들과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피보험자들, 보험거래를 중개해주는 보험중개인들로 구성되어있다.

현대유럽보험시장에는 우선 보험업체들이 참가하고있다.

보험업체는 보험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이다. 나라마다, 시기마다 보험업체의 구성은 달라질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업체들에는 개별적인 보험업자들이 경영하는 민간보험업체들과 국가나 공공단체가 경영하는 공영보험업체들이 속하게 된다. 이와 함께 외국보험업체도 있고 국내보험업체와 외국보험업체가 공동으로 경영하는 합영보험업체들도 보험의 제공자로 참가하고있다.

유럽보험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험업체들을 보면 영국의 로이즈보험업체, 도이칠란드의 문헨재보험그룹, 스위스의 쥘리히재보험그룹, 프랑스의 악싸보험회사와 같은 보험업체들이다.

자본주의경제가 확대되는데 따라 전문보험회사들과 함께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도 보험시장에 뛰어들고있다. 이것은 보험시장의 자유화가 추진되고 금융의 자유화, 증권화, 국제화에 의하여 생긴 변화이다.

은행보험은 은행, 각종 기금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와의 협력으로 공동의 판매통로를 통하여 자기의 거래자에게 보험상품과 보험봉사를 제공한다.

20세기 80년대에는 은행매대에서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하는것으로만 인식되어있던 은행보험은 유럽에서 시장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경제의 《일체화》과정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면서 그것을 포함하는 내용도 보다 넓어졌으며 최근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을 비롯한 많은 유럽나라의 은행들이 보험업무를 진행하고있다.

은행들은 생명보험상품들을 판매하는데서 지배적지위를 차지함으로써 자기들이 광범한 손님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려고 하고있다. 많은 합영기업들은 투자, 년금 등을 판매하는 은행과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되었다.

현대유럽보험시장에는 또한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피보험자들이 참가하고있다.

피보험자에는 각이한 업체들과 개인들이 속한다.

보험에는 법적으로 승인된 기업체나 개인들이 가입할수 있다. 이전시기 많은 나라들에서는 주로 해당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업체들과 개인들 즉 거주자들에게만 보험을 제공하였지만 최근에는 보험시장의 개방으로 하여 비거주자들에게도 보험을 제공하고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있던 고령자들도 보험상품의 구매자로 되고있으며 미성년들의 비중도 늘어나고있다.

현대유럽보험시장에는 또한 보험거래를 중개해주는 보험중개인들이 참가하고있다.

보험거래에는 수요자와 공급자 등 거래관계자들이 다 모이지 않고 많은 경우에 보험수요자와 공급자사이를 연결해주는 보험중개인이 개입되어 보험거래가 진행된다.

특히 영국의 로이즈보험시장에서는 모든 보험거래가 보험대리인이나 대리매매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로이즈보험시장에서 피보험자나 원보험자는 보험회사나 재보험회사와 직접 보험거래를 맺지 않고 주로 보험대리인이나 대리매매자와 같은 보험중개인들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보험거래관계를 형성한다.

보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사이의 호상관계는 금융시장에서와 달리 원천과 판매량에서 호상제약되지 않고 수요에 따라 공급이 즉시에 이루어진다. 그것은 보험에 대한 수요가 많을수록 그 공급원천으로서의 보험기금이 많아지고 위험담보의 능력도 높아지기때문이다. 보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사이의 이런 특성으로 하여 보험중개사업은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활발히 진행되게 된다.

보험대리인과 대리매매자는 다같이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보험거래업무를 대리하는 사업을 한다.

일반적으로 대리매매자는 보험기관의 위탁을 받고 그 사업을 대리하며 보험대리인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체결을 비롯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리익과 편의를 도모한다.

현대유럽보험시장은 다음으로 보험대상에 따라 생명보험시장과 비생명보험시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생명보험시장은 보험대상인 사람이 자연재해나 뜻밖의 위험으로부터 입게 되는 피해

를 보상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시장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회제도자체의 모순으로 인한 생명피해의 확대, 불안정한 생활 처지를 개선해보려는 사람들의 요구, 혹심한 자연재해 등의 원인으로부터 생명보험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는 더욱 높아져 그에 맞게 생명보험형태가 더욱 세분화되고 생명보험거래가 활발해졌으며 그를 통한 보험료수입도 늘어나고있다.

2014년에는 유럽의 총보험료수입 1조 1 690억€가운데서 생명보험료수입은 7 140억€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2013년에 비하여 생명보험료수입에서는 5.5% 증가한것으로 된다.

유럽생명보험시장은 2015년에도 보험료가 1.5% 장성하여 7 330억€를 기록함으로써 여전히 상승을 유지하고있는데 이것은 2014년의 6.3%에 비하여 아주 낮은 비율이다.

2015년에 유럽생명보험시장에서 가장 많은 생명보험료수입을 얻은 나라는 영국이며 그다음은 프랑스였다.

유럽생명보험시장에서 거래되는 보험형태에는 크게 저축성생명보험과 비저축성생명보험이 있다.

저축성생명보험은 주기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를 원천으로 하여 만기가 되면 만기보험금을 지불하고 만기전에 사망이나 부상, 로동능력상실 등 여러가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불해준다.

저축성생명보험형태에는 만기보험, 혼합생명보험, 년금보험, 결혼보험, 정기부양료보험 등이 있다.

유럽보험시장에서 거래되는 생명보험의 다른 형태로서의 비저축성생명보험에는 일반상해보험과 소득보상보험, 로동자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등 여러가지가 있다.

특히 의료보험은 그 적용조건이 건강이라는 점에서 가장 대중성이 크므로 많은 나라에서 조직화되어 운영되고있다. 의료보험은 처음 도이칠란드에서 1883년에 제정되고 1884년부터 실시되었는데 이때의 보험을 질병보험이라고 하였다. 그후 1911년 영국에서 국민보험법이 제정되기까지 약 30년동안 많은 나라들에서 질병보험을 실시하였다.

현대유럽보험시장에서 의료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있다.

인구의 고령화와 의약품가격의 인상으로 하여 개인의료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어 2015년에도 유럽시장은 장성을 기록하였다. 총적으로 보험료는 3.5% 증가하여 1 270억€로 되었다.

일반적으로 의료보험은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와 수입, 의료비용의 변화, 보험에서 부담해주는 의료비용의 효과성, 보험료수입의 정도에 기인된다.

비저축성생명보험은 저축성생명보험에 비하여 보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만기보험금은 지불되지 않고 보험사고에 의한 보험금만 지불되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오늘날 유럽생명보험시장에서 생명보험은 다종다양한 형태로 거래되고있으며 그것은 자본주의사회일반에서 존재하는 자연적, 사회적위험의 증대와 국가의 반인민적시책, 사회제도자체가 안고있는 악습으로 하여 더욱더 늘어나 보험시장의 규모를 확대시키고있다.

비생명보험시장은 유럽보험시장에서 생명보험시장과 함께 중요한 구성요소를 이룬다.

비생명보험은 외부적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산의 손해를 담보하며 사람, 재산, 기업들을 비롯한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한다.

사람들은 생활하는 과정에 화재, 해일을 비롯한 자연적위험, 폭동, 파산과 같은 정치적

및 사회적위험으로부터 재산상 및 신체상피해를 입을수 있다. 이러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사람들은 비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피해보상담보를 받는다.

14세기 중엽에 해상업이 발전하면서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나라들에서 널리 진행된 해상보험으로부터 발전의 길을 걸어온 비생명보험업은 유럽의 경제발전과 함께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여러가지 보험형태를 산출시켰다. 비생명보험업체들은 현대과학기술의 발전과 동반하여 생기는 새로운 보험위험에 대처하여 전자상업보험, 인공위성보험, 우주보험, 인터넷보험, 사이버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과 같은 각종 비생명보험형태들을 창안하여 보험거래에 리용하였다.

유럽비생명보험시장에서 거래되는 보험형태는 크게 재산보험, 배상책임보험, 신용보험, 보증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재산보험은 비생명보험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장 전형적인 보험형태이다.

재산보험은 사람들이 창조한 물질적재부를 재산이라는 하나의 범주에 포함시켜 재산에 미칠수 있는 위험으로 인한 손해보상을 담보한다. 재산보험은 보험금액이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형태에 비하여 높으며 피보험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보험대상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반환되지 않는다.

유럽비생명보험시장에서 재산보험은 해상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항공보험, 화물보험, 인터넷보험, 컴퓨터보험, 손전화기보험 등의 형태로 거래되고있다.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입힌 인명피해와 재산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최근시기 유럽에서 배상책임보험은 산업 및 상업, 개별적인 전문직업분야, 법적 및 경제적권리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적용되고있으며 그 거래량도 늘어나고있다.

유럽비생명보험시장에서 20%를 차지하는 배상책임보험시장에서는 기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전문직종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법률상의 재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등이 거래된다.

신용보험은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 맺은 일정한 계약에 기초하여 채무자가 계약상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신용보험에서는 채권자가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로 되고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 맺은 계약이 보험성립의 기초로 되며 채무자의 지불능력상실이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유럽비생명보험시장에서 거래되는 신용보험에는 신용보증보험, 대부금신용보험, 수출신용보험, 해외투자보험 등 여러가지가 있다.

보증보험은 채무자가 채무를 리행하지 않아 채권자가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증보험에는 손해를 보상하는 방식에 따라 정액보상방식과 실지손해보상방식이 있다. 정액보상방식은 미리 보상금액을 정해놓고 손해가 나면 이미 정해진 금액만을 보상하는 방식이고 실지손해보상방식은 실지 일어난 손해에 기초하여 손해액을 계산하여 보상하는 방식이다.

보증보험은 재정상태가 낮은 중소기업체들이 많이 리용하고있다.

오늘날 유럽비생명보험시장에서는 다종다양한 비생명보험형태들이 출현하여 보험거래량이 더욱더 늘어나고 보험료수입도 증대되어 비생명보험시장규모는 더욱 확대되고있다.

2014년에 유럽의 비생명보험시장은 세계총비생명보험료수입의 33%로서 4 550억€의 수입을 기록하여 전해에 비하여 0.4% 증가하였다.

가장 큰 비생명보험시장인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총보험료수입은 1 308억€였고 재산보험시장에서는 913억€, 배상책임보험시장에서는 318억€였다.

자동차보험은 2013년에 가장 큰 비생명보험업무였는데 전체 비생명보험시장의 27.4%를 차지하였다.

2015년에 자동차보험료는 1 330억€로서 2014년과 같이 비생명보험료의 38.5%를 차지하고있다.

지난 시기 많은 나라의 보험업체들은 생명보험시장과 비생명보험시장에서 위험의 예측성에서의 차이와 보험금 및 보험보상금의 규모와 보험기간에서의 차이로 하여 생명보험과 비생명보험대상을 같이 담보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손해규모가 큰 비생명보험도 재보험을 리용하여 위험을 분산시키고 보험보상금지불을 위한 자금도 상당히 축적하였으며 보험종류에 따라 손해를 안정되고 보험기간도 장기화되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생명보험과 비생명보험사이의 업무구분이 점차 없어지고있다.

현대유럽보험시장은 다음으로 거래조직방식에 따라 직접보험시장과 재보험시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직접보험은 보험거래가 보험업체와 피보험자사이에 직접 이루어지는 보험이다.

유럽의 직접보험시장에서는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여러가지 재산보험형태와 생명보험, 사고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거래로 진행되고있다.

재보험시장은 직접보험을 통하여 받은 보험업무를 분양 또는 접수하는 일정한 영역, 다시말하여 상품으로서의 재보험을 팔고 사는 영역이다.

재보험시장이 형성되자면 보험상품거래가 진행되어야 하며 재보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보장되어야 한다. 재보험에 대한 공급은 직접보험대상을 담보한 보험회사가 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조직하며 보험회사인 분양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재보험에 대한 수요는 재보험을 접수하려는 보험회사들에 의하여 제기된다.

재보험시장에서 재보험거래는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 재보험연합체에 의한 거래로 이루어진다.

재보험시장에서는 보험업체들사이에 주고받는 재보험거래형식이 기본으로 되고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 보험업체들의 구성을 놓고볼 때 직접보험회사가 압도적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보험업체로서 직접보험과 재보험을 취급하는 업체가 다수를 이루고있다.

전문재보험업체는 직접보험을 취급하지 않고 재보험거래만 다룬다. 재보험업체는 다른 보험업체가 조직한 재보험업무를 접수하며 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재보험을 조직한다. 재보험거래는 위험을 더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경영리윤을 확보하려는 재보험업체들의 리기적목적과 관련하여 조직된다.

현대유럽재보험시장에서는 재보험거래가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재보험은 보험업체들사이에 진행되는 보험거래형태이다.

재보험에서는 보험업체가 받은 보험을 다른 보험업체들에 나누어주어 하나의 보험대상에 대하여 여러 보험업체가 함께 위험을 담보한다.

보험이 보험업자들의 리윤추구를 위한 사적기업의 형태로 조직운영되고 자본의 축적과 집적, 집중이 강화된 결과 자본의 규모가 커지고 위험이 증대되고있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재보험거래는 급속히 확대되고있다.

현시기 유럽보험시장에서 재보험거래가 활발히 진행되게 된것은 대규모기업체들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나라들사이, 기업체들사이의 무역거래량이 커지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이로부터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담보한 위험을 분산, 전가시키기 위하여 재보험거래가 많이 진행되고있다.

유럽보험시장에서 거래되는 재보험형태는 크게 비례제재보험과 비비례제재보험으로 구분한다.

비례제재보험은 원보험자와 재보험자들의 책임몫을 보험금액에 기초하여 규정하는 재보험형태로서 여기에는 자원재보험과 백분률재보험, 초과액재보험들이 속한다.

비비례제재보험은 계약당사자들의 책임몫을 보험대상별, 사고건별손해액과 손해률에 기초하여 정하는 재보험으로서 여기에는 손실초과액재보험과 손실초과률재보험이 있다.

이처럼 유럽보험시장은 보험업체들의 최대한의 리유희득, 위험의 증대와 보험대상의 확대에 의하여 그 구조는 더욱더 복잡해지고있으며 따라서 보험시장구조에서 지난 시기에 비해 일련의 변화를 가져왔다.

현재 유럽보험시장은 확대되어 그 규모가 비대해지고있다.

유럽나라들의 보험업발전수준은 각이하다. 그중에서 영국보험시장과 프랑스보험시장, 도이칠란드보험시장, 이탈리아보험시장은 유럽에서 가장 발전된 보험시장들로 알려져있고 유럽보험시장의 총보험료수입의 70%가 이 시장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있다. 프랑스보험시장과 영국보험시장, 도이칠란드보험시장들은 유럽보험시장 총자산의 60%를 운영하고있다.

실례로 영국의 보험분야는 유럽적으로 가장 크며 압도적지위를 차지하고있다. 이 보험분야는 국제적으로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는데 해외기업으로부터의 보험료수입은 30%에 이른다.

이와 같이 현대유럽보험시장은 그 구조에서 일련의 변화를 가져오고있으며 그로부터 유럽보험시장은 보험업이 매우 발전한 오늘날에 와서는 보험시장의 구성요소와 형태, 거래방법 등이 극히 다양화되고 거래규모가 대단히 커지고있다.

현대유럽보험시장은 대륙별보험시장에서 가장 큰 보험시장중의 하나로 2014년에 세계보험료총수입의 3조 3 400억€가운데서 1조 1 690억€로서 35%를 차지하였다.

현대보험시장의 추세에 맞게 보험거래를 발전시켜나가자면 현대유럽보험시장의 동태를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

현대유럽보험시장의 동태는 무엇보다먼저 보험시장에서 보험형태와 보험거래방법이 더욱 다양해지고있는것이다.

보험업체들에 있어서 리윤의 원천은 직접보험이나 재보험을 통한 보험료와 재보험료이다.

보험자들에게 있어서 리윤의 원천은 피보험자들에게서 받아들이는 보험료이다. 그러므로 보험자들은 더 많은 피보험자들을 자기들에게 끌어당기기 위하여 보다 편리한 보험상품들을 개발리용하고있으며 피보험자들은 자연재해나 사고와 같은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입게 되는 피해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보상받을수 있는 보험상품을 선택하려고 한다.

우선 보험형태들이 더욱 다양해지고있다.

유럽에서 금융시장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보험형태도 다각화, 다양화되면서 보험시장 거래의 다양화현상이 심화되고있다. 보험형태의 다양화는 보험대상의 다양화를 전제로 하며 보험대상의 다양화는 보험위험의 다양화에 기초하고있다.

《위험이 있는 곳에 보험이 있다.》, 이것이 오늘날 보험업자들이 제창하는 보험의 필요성이다. 그런만큼 위험이 증대될수록 보험업은 더욱 활기를 띠고 진행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기술적위험의 종류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자본주의사회의 사회적불안과 관련하여 사회적위험이 확대되고 자연환경의 파괴로 그에 따르는 자연재해도 대규모화되고있다. 이러한 새로운 위험들에 대처하여 1990년대에 새롭게 생긴 보험종류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은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연장보증보험, 망중개보험, 생산물회수비용보험, 휴양봉사시설비용보험, 암보험 등이다.

2000년대에는 손전화기보험, 월드컵경기대회보험을 비롯한 많은 보험업종들이 새로 출현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 세계적으로 만연되고있는것이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피해이다. 지구상의 모든 기업체와 공장, 개인들은 여러가지 업무를 컴퓨터를 리용하여 진행한다. 이런 컴퓨터들은 하나의 국제적인 인터넷망으로 연결되어있는데 이 망의 한 연결점인 어떤 컴퓨터에 컴퓨터바이러스가 침입하면 그 후파는 세계적판도에도 미치게 된다.

오늘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는 자본주의경제를 위협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컴퓨터와 관련된 보험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늘어나고 그에 맞게 새로운 보험업종들이 출현하고있다.

인터넷보험, 전자상업보험, 사이버배상책임보험 등은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나온 보험형태들이다.

전자상업보험은 인터넷리용 및 전자상업거래에서 발생할수 있는 위험들을 담보하기 위하여 나온 보험형태이다. 전자상업보험이 담보하는 위험들에는 컴퓨터망체계의 마비 때문에 발생하는 정보의 손실, 지적재산의 파손,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손해, 컴퓨터프로그램작성에서의 결함, 업무거래방해위험들이 포함된다.

사이버배상책임보험은 현시기 국가기관 및 회사들, 개인들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의한 피해에 대처하여 나온 보험이다. 사이버배상책임보험은 IT산업과 관련된 넓은 범위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어떤 사건에 대한 화폐적보상과 함께 사건 그자체의 관리도 진행한다. 이 보험이 담보하는 자료에는 신용카드나 채무카드정보, 건강이나 신상에 대한 개인정보, 무역이나 상업비밀과 지적재산, 운전면허자료, 려권과 같은 예민한 개인자료 등이 속한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사이버배상책임보험이 전문봉사자들의 기능상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료류실이나 부정행위의 위험도 담보한다.

유럽보험시장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런던보험시장에서의 사이버배상책임보험은 IT산업이 발전하고 사이버위험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더욱 증대되어 1억€를 보상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정보산업이 발전할수록 사이버공격에 의한 위험은 더욱 증대되고 그에 따라 사이버보험과 같은 컴퓨터와 관련된 보험업이 더욱 확대되게 된다.

사이버보험은 사이버자체가 내포하고있는 위험을 소개하면서 급격히 발전하고있다.

유럽에서는 여러가지 보험업종을 종합하여 피보험자들에게 제공하는것이 하나의 류

행으로 되고있다. 이런 보험종류들가운데는 패키지보험과 주택종합보험도 있다.

패키지보험은 기업활동에 따르는 각종 위험들을 하나의 증권으로 담보하는 종합보험이다. 패키지보험은 매개 기업체들에 직면하여있는 위험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개별적인 위험들사이에 존재하는 호상관계를 정확히 밝혀내고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손해들과 하나의 대상에 손해를 일으키는 여러 종류의 위험들을 여러 해동안 결합하여 포괄적으로 담보한다.

패키지보험의 우점은 련거위험담보방식인 전통적보험에 비하여 포괄위험담보방식을 취함으로써 보험담보에서 있을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며 화재보험, 기계보험, 기업중단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여러개로 나누어 관리하던 보험증권을 하나의 증권으로 관리하여 업무효률을 최량화할수 있고 보험료를 감소시킬수 있다는데 있다.

주택종합보험은 재산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결합시킨 보험형태로서 피보험자가 입은 주택 및 주택안의 재산손해, 제3자배상책임을 담보한다.

최근시기 유럽에서는 보다 깨끗하고 문화적인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이런 주택안에서 있게 되는 여러가지 위험을 담보로 한 보험증권이 많이 거래되고있다.

또한 보험거래방법이 다양해지고있다.

보험거래의 다양화는 보험증권의 분배통로에서 찾아볼수 있다.

보험거래통로가 다양해지게 된것은 보험상품의 판매업무를 정보화하여 판매의 효과성을 높이고 판매령역을 넓히려는 보험회사들의 리기적목적과 관련된다.

보험업체들은 자기들의 보험증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여러가지 다른 통로, 가장 일반적으로 대리매매자들과 보험대리인, 은행보험과 같은 통로를 통하여 판매한다.

은행보험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뽀르뚜갈, 뽀르끼예를 비롯한 많은 유럽나라들에서 주요한 생명보험분배통로로 되고있다.

유럽생명보험시장에서는 은행보험을 통한 보험거래가 류행되고있다. 유럽생명보험시장에서 은행보험을 통한 보험거래가 성행하게 된것은 생명보험이 저축성의 성격을 많이 띠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유럽생명보험업체들은 비생명보험에 비하여 리윤이 적은 생명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은행에 위탁하여 그것을 여러가지 금융활동에 활용함으로써 그 리윤을 늘이려고 한다.

이로부터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은행을 통한 보험거래 즉 은행보험을 활발히 진행하고있는것이다.

중개인이나 종업원을 통한 직접판매, 먼거리판매도 생명보험분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럽에서 비생명보험증권의 분포는 기본적으로 보험중개인(보험대리인과 드물게 대리매매자)들과 종업원을 통한 직접판매, 먼거리판매를 통하여 진행된다.

유럽보험업체에서는 컴퓨터망을 통한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유럽의 모든 보험회사들은 Google망에 자기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거기에 자기 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증권들의 특성과 보험료, 보험금 및 보험보상금 등을 올려 사람들이 앉은 자리에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증권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단위시간동안에 이전보다 많은 피보험자들을 받아들일수 있게 그 구조를 정비하고있다.

정보기술이 발전하고있는 오늘날 자동차보험업에서도 최신과학기술수단과 수법들이 널

리 도입되어 새로운 보험거래방식인 보험텔레마틱스가 개발되어 발전하고있다.

일반적으로 텔레마틱스는 먼거리통신망에 의한 운수수단과 같은 먼거리의 어떤 객체와 관련된 정보의 종합을 말한다. 텔레마틱스는 운송과 관련된 봉사를 진행할 목적으로 큰 망에서 자료를 나르고 저장하고 받는 컴퓨터와 먼거리무선통신기술을 리용한다. 이 기술을 보험에 도입한 보험텔레마틱스는 현재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고려하여 보험금액을 개정할수 있으며 손해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보험봉사를 합리적으로 할수 있게 한다.

2011년에 유럽에서는 2억 4 100만대이상의 승용차를 포함하여 총 2억 7 800만대이상의 운수수단들이 이 기술을 리용하였다. 이 기술은 앞으로도 많이 리용되어 유럽자동차보험업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것으로 보고있다.

유럽의 대부분 보험시장들에서는 은행보험을 널리 도입하여 보험거래의 많은 비중을 그를 통하여 실현하고있다.

그러나 영국보험시장에서는 보험거래를 은행보험보다도 보험중개인을 통하여 더 많이 진행하고있으며 로이즈보험시장에서는 모든 보험거래를 보험중개인들에 의하여 진행하고있다. 그것은 영국에서 보험중개인을 통한 보험거래를 법화하고 그것을 일관하게 실시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특히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생명보험시장들에서는 은행보험을 중요한 보험거래통로로 리용하고있지만 영국의 생명보험시장에서는 전혀 리용하지 않고있으며 비생명보험시장에서도 7%밖에 리용하지 않는다.

영국보험시장에서는 보험중개인을 통한 보험거래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데 이것은 2014년에 생명보험의 60%, 비생명보험의 55%를 보험중개인을 통하여 보험증권을 판매하였다는것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이와 같이 현대유럽보험시장에서 보험거래가 여러가지 방식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대유럽보험시장의 동태는 다음으로 생명보험료수입이 날을 따라 더욱 늘어나고있는것이다.

생명보험의 력사는 해상보험이나 화재보험에 비하여 훨씬 짧다.

력사적으로 볼 때 유럽의 생명보험은 영국에서 발생하였는데 수학과 통계학이 발달한 영국에서는 1693년에 세계최초의 사망표가 작성됨으로써 생명보험의 기술적기초가 마련되고 1762년에 세계최초의 근대적생명보험회사 에퀴터블, 쏘사에티가 세상에 생겨났으나 그때 당시는 아직 초창기에 불과하였다. 유럽에서는 20세기에 와서 많은 생명보험업체들이 생겨나고 여러가지 생명보험형태가 개발되어 생명보험업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이로 하여 유럽생명보험시장이 형성되게 되었다.

유럽의 경제구조에서 생명보험은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 자본주의사회의 계속되는 경제위기가 보험시장에도 후과를 미치고있지만 자연재해와 불안정한 사회정치적환경으로 하여 생명보험시장은 여전히 장성을 이룩하고있다.

지금 유럽생명보험업체들은 보험상품의 가격을 낮추고 상품설계를 재검토하며 리자률조종투자전략을 개선하는 등 판매수익을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보험업자들의 이러한 노력으로부터 유럽의 생명보험시장에서는 보험료수입이 계속 늘어

나고있다. 2012년부터 2014년사이의 유럽생명보험시장의 총보험료수입액은 다음과 같다.

유럽생명보험료수입액

년	총보험료수입(10억€)	생명보험료수입(10억€)	비율(%)
2012	1 093	643	58.8
2013	1 129	677	60.0
2014	1 169	714	61.1

유럽에서 가장 큰 생명보험시장으로 되고있는 나라들은 영국과 프랑스, 도이칠란드, 이탈리아로서 2012년에 이 시장들의 총보험료수입은 유럽총보험료수입의 70%를 차지하였다. 영국에서는 생명보험료수입이 2011년에 비해 8.3% 뛰어들라 1 730억€였으며 도이칠란드생명보험료수입은 0.6% 증가하여 870억€였다.

유럽생명보험시장은 비생명보험시장에 비하여 그 력사가 오래지 않지만 나날이 증대되는 사람들의 생사와 관련한 요구로부터 세계보험시장에서 많은 몫을 차지하고있다.

현대유럽보험시장의 동태는 다음으로 재투자가 확대되고있는것이다.

보험업의 초창기에는 피보험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수입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보험손해를 보상하고 남는 리윤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점차 자본주의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자연재해와 사회적 및 정치적위험이 더욱 증대되면서 보험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져 보험업으로부터 얻는 리윤이 커지게 되었다.

피보험자들로부터 받는 보험료는 오래동안 보험업체에 의해 사장되게 되는데 이 자본을 다른 경제부문에 투자하면 그로부터 리윤을 얻을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를 보상할수 있는 능력이 커지게 된다. 이로부터 대부분의 보험시장들에서는 재투자를 많이 하고있다.

최근시기 유럽보험시장에서도 재투자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있는데 2014년 12월 31일에 종합해본데 의하면 유럽보험업은 거의 9조 9 000억€를 채권과 회사주식 등에 재투자하였으며 이것은 2013년에 비하여 9.4% 증가한것으로 된다.

보험업이 가장 발달되었다고 하는 영국도 재투자를 많이 하고있는데 2013년에 생명보험시장에서는 1조 6 600억€ 비생명보험시장에서는 1 300억€ 총 1조 7 900억€를 재투자에 리용하였으며 도이칠란드도 생명보험업에서는 8 700억€, 비생명보험업에서는 6 800억€ 총 1조 5 500억€를 재투자하고있다.

유럽보험업체에서 재투자를 많이 진행하는것은 생명보험업자들로서 전체 투자증권소유자들의 80%이상을 차지하고있다.

유럽에서 재투자의 60%이상은 영국과 프랑스, 도이칠란드에서 하고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위험이 적은 채권에 대한 재투자에 큰 힘을 넣고있다. 채권에는 국채와 지방채, 사채 등이 있는데 국채나 지방채는 채무불리행가능성이 매우 적으며 사채는 안정된 수입과 기업체의 리익분배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이로부터 주식을 비롯한 다른 증권형태에 비하여 채권에 대한 재투자가 위험이 적으며 많은 보험업자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채권에 투자한다.

유럽보험업자들은 총재투자액의 13.6%를 대부 및 저당증권에 재투자하며 13%를 투자자금으로 리용하고있다.

이밖에도 그들은 우선주나 보통주를 사들이거나 은행에 예금하고 여러가지 파생금융

상품을 구입하는 등 많은 경제부문에 투자하고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2014년의 채투자액을 보면 영국은 24억 8 000만€, 프랑스는 21억 4 000만€, 도이칠란드는 17억 4 000만€, 이탈리아는 6억 3 000만€이다. 유럽에서 채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영국이다.

이렇듯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는 유럽보험시장은 자본주의세계에 편이여 들이닥치는 경제공황으로 현시기 그 발전속도가 떠지기는 했지만 오늘날도 세계보험시장에서 큰 몫을 차지하면서 끊임없이 확대되고있다.

3. 결 론

우리는 현대유럽보험시장의 동태에 대한 깊은 파악에 기초하여 보험시장의 구조와 그것이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발전에 의한 물질적부의 확대와 사람들의 물질문화적수요의 증대, 금융거래의 다각화와 다양화 등에 의하여 어떻게 변화되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이로부터 해당 나라들에서 항시적으로 존재하는 자연적 및 사회적위험에 의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정도, 해당 나라들이 실시하는 경제적시책과 기업체들이 추구하는 영리적 목적 등 현대유럽보험시장의 동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보험거래를 조직하여야 한다.

우리는 현대유럽보험시장의 구조와 동태에 대한 옳은 이해를 가지고 국제보험시장들에 적극 진출하여 다종다양한 보험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직함으로써 나라의 대외경제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유럽보험시장, 비생명보험, 신용보험